

“정법 수호 · 포교 매진 하자”

불교교권수호협의회, 23일 부산 KBS홀서 대법회 7천여 사부대중 교권수호 의지 모아 호법단 결성

“사찰이 무너져야 평화가 온다면 내 이 손으로 무너뜨리리.”

‘종교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수호대법회’가 열린 1월 23일, 이 문구가 정법 수호를 위한 불자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 부산 KBS홀을 가득 채운 7000여 사부대중의 내면에도 아로새겨졌다. 불교교권수호협의회(상임대표 정각)가 주최한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통도사 삼광사를 비롯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법화종, 총지종, 해인종 등 종단과 부산 경남 500여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대거 참석했다. 650여명을 넘는 스님과 7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는 근래 부산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의 인원이 동참해 종교평화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결집하는 자리가 됐다.

3시부터 식전행사로 바라밀무용단과 들소리타악연주단의 ‘불구정도의 길’이라는 공연이 50여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어진 본행사는 불교교권수호협의회 조직위원장 정여 스님의 고분문, 불교교권수호협의회 사무처장 자인 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불교교권수호협의회 상임대표 정각 스님의 대회사로 이어졌다.

정각 스님은 “타종교를 이유 없이 부정하는 잘못된 종교관을 가진 이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스스로의 근본을 부정당하는 지금 파사현정의 정신을 굳건히 세워 우리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범어사 주지 대성·통도사 주지(직무대행) 산용·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손정현 회장은 연설을 통해 “자비라는 이름으로 범어리 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이법법적 사고로 다른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죽은 종교임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단 한사람에게라도 더 법을 전하기 위해 전법의 길을 걷고 또 걸었던 부처님처럼 정법 수호와 포교에 매진 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지난해 6월 열렸던 ‘Again 1907 in Busan’ 동영상과 책발 사례들을 접한 뒤에는 참담함과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법회는 불자들의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불교수호대법회의 참다운 취지와 의미를 살려내는데 힘을 모았다. 불교교권수호협의회 집행위원장 범산 스님과 확인스님들의 집전으로 20여 분간 이어진 ‘관세음보살’ 정극은

7000여 불자들의 정법 수호 의지를 하나로 모아냈다.

특히 결의문 채택과 108호법단 결성을 통해 불교수호대법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불교수호와 흥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이어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호법단에 참여한 김진희(부산 대각사 청년회) 불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마음을 모을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뜻을 모아 죽어도 전법하겠다는 뜻과 부처나 존자의 각오로 호법단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순임 보살도 “말로만 듣다가 동영상 보고 흥분을 누를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불자들이 더욱 정진하고 지혜를 길러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정여 스님 등이 ‘자비통일신발’을 복측에 보내고 있다.

신발 1만2400족 北으로

24일 참여불교운동본부 자비통일신발 선적

(사)참여불교운동본부(이사장 정여)는 1월 24일 여여선원 앞에서 자비의 통일신발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식에는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정여·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지현 스님,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운영위원 및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참여불교운동본부는 2004년 9월 25일부터 8차에 걸쳐 1000족씩 8000족

을 전달해 왔으며 2005년 11월 통일부에 사단법인 등록허가를 받았다. 또한 2005년 11월 30일 영남지역 최초로 대북 지원사업자로 선정돼 2006년 2월 조선불교도연맹측과 3만족의 어린이 통일신발을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선적된 1만2400족의 신발은 2006년 12월 29일 이사장 취임식을 겸해 열린 신발지원 후원회를 비롯 불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다. **천미희 기자**

기도 공덕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 되길

포항불교사암연합회 1080정진대법회 봉행



올바른 수행과 진정한 봉사의 실천을 다짐하는 1500여 포항 불자들의 신심으로 포항 실내체육관이 후끈 달아올랐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민)가 1월 27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밝은 세상을’이라는 주제로 제2

회 1080정진대법회를 봉행한 것. (사진) 1080정진대법회는 지난 2004년에 전국 3만여 불자들이 前 포항시장의 종교평화정책에 반발하면서 종교의 공존과 평화정착을 기원하기 위해 벌였던 범불교대회

제기로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식전공연 날피북춤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활지한 기도수행중심의 법회답게 108참회문을 통한 108배의 수행정진을 반복하며 540배의 절을 하고, 사사이어 참선수행체험과 지역발전서원, 천불가 강습, 천태종 황해사 음암 스님의 법문 등의 시간을 가지며 6시간동안 진행됐다. 나머지 540배의 절은 성도절인 26일까지 각자의 집에서 함으로써 정진의 고백을 일상에서도 늦추지 않도록 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종민 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 성도절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밝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를 기원하는 제2회 1080정진대법회의 기도공덕이 52만 포항시민의 안녕과 지역경제회생의 가미로 회향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박승호 포항 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축하 영상메시지에 이어 올 해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축하영상 메시지가 전달됐다. **배지선 객원기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실시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경주시로부터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45인승 버스를 지원받아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운송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경주시장애인복지관은 1월 23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백상승 경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청 주차장에서 버스전달식을 가졌다(사진).

경주시장애인복지관 종광 스님은 “그동안 교통편이 여의치 못해 사회활동이 미비한 장애인들과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체육관이 오는 3월이면 완공될 예정이어서 경주시 1만 4000여 장애인을 위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지선 객원기자**

속우회, 신년 행다 발표회

차를 우리고 마시는 행다에 우주가 내려앉았다. 소용돌이치는 바다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의 흐름이 행다법에 녹아 무대위에 올려졌다.

1월 18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나선과 만다라’를 주제로 열린 속우회(회장 강수길)의 신년 행다 발표회가 차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사진).

속우회 신년 행다 발표회에서 선보인 행다는 만다라(曼陀羅), 은하(銀河) 말차, 해선(海線) 잎차, 선풍(旋風) 말차, 은하 잎차, 해선 말차, 선풍 잎차, 만다라 말차 등. 특히 이날 선보인 속우회의 만다라 행다는 차를 마시는 행위와 선(禪)이 어우러져 2시간이상이 걸리는 다법이다. 만다라행다는 정토에 다다르기 위해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의식과 동일시되는 만다라를 상징하며 촛불과 이가수, 바르는 향인 도향, 태우는 향인 소향, 다식과 차를 허공에 공양올린 다음 선에 들어간다.

차를 통해 수행하며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행다속에 구현해내며 독창적이고 미학적인 행다를 선보여온 속우회는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회를



이끌고 있는 강수길 회장의 지도로 속우회만의 색깔이 살아있는 행다를 선보이고 있다. 강수길 회장은 경봉·명정·일장 스님 등에게 불교 가르침을 배워 발우공양 의식을 30여 가지의 행다로 창작하는 등 깊은 불교적 가르침이 녹아 있는 행다로 차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011-863-6034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탈 종 공 고

- | | | |
|-----------|-----------|---------|
| 연화사 성월 | 보림정사 성원 | 계룡암 보리심 |
| 관음사 청일 | 보안사 무봉 | 관음사 혜안 |
| 백년사 청호 | 청국사 지검 동원 | 우정암 일수행 |
| 만덕사 용선 | 묘관사 연담 | 서운사 성각 |
| 약수암 의룡 | 부석사 혜가 혜인 | 영불사 법계화 |
| 옥수사 해운 승도 | 동육 혜운 | 향산사 자운행 |
| 용덕사 법관 | 봉정사 일운 | 향천사 혜련 |
| 월명암 성호 | 원불사 선경 | 관음암 수일 |
| 천명사 성인 | 태울정사 해담 | 약수암 월화심 |
| 칠곡사 혜선 | 천수암 자비심 | 혜월성 |
| 묘관사 호연 | 천암사 연주행 | |

◆대표자 : 연화사 성월(이남근) 강원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370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중지중풍이 맞지않아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사단법인 한국불교삼론종 창종발기인 공고

• 상임고문

부 석 사 석봉 백 년 사 청호 관 음 사 청일

• 원로위원

불 광 사 정봉 봉 정 사 일운 약 수 암 의룡
월 명 암 성호 묘 관 사 연담 천 명 사 성인

• 추진위원

연 화 사 성월 묘 관 사 호연 보림정사 성원 보 안 사 무봉
청 국 사 혜옥 용 덕 사 법관 칠 곡 사 혜선 정 토 사 고산

• 재무위원

청 국 사 혜옥 동현

• 발기위원

고 당 사 응진 맹 천 사 경공 보 문 암 지호
호산정사 혜관 상 봉 사 혜원 구 룡 사 혜암
영 점 사 향진 해인 상근 초의